## 맞이하기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요약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 은혜 나누기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 함께 기도하기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이사야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날이지만,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1. '모든' 높아진 것에 임하는 심판**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이라는 표현을 열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그 어느 것도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12-16절).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출 것입니다(12절). 이 사실은 높음을 나타내는 세 부류의 대상으로 확장되어 은유적으로 묘사됩니다. 첫째는 모든 높은 자연물들, 곧 높이 솟은 나무들과 산과 언덕들입니다(13-14절).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힘과 높음을 자랑하는 모든 창조물까지도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인간의 위대한 건축물들입니다(15절). 이러한 건축물들은 높고 튼튼하게 쌓아 올려서 인간이 스스로의 안위를 지켜내고자 한 것들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인 후,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자신의 아들을 이름 딴 성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창 4:16-17). 홍수 이후에 시날 땅의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건설하여 명성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창 11:4-5).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풍요로움입니다(16절). 다시스로 향하는 많은 배에는 수많은 사치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유다 땅에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현실에 대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7절). 경제적 풍요만큼 사람의 의지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참고. 눅 12:16).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장으로 생각하는 모든 경제적 자원들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참고. 계18:15-19).

**2.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모든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딛고 의지했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17-19절). 그 때에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은금이 소용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을 다 내던지고 이 두려운 날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지하는 모든 시도는 따져볼 이유도 없이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주시는 호흡이 아니면 말 그대로 흙덩이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참고. 창 2:7).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성이 자기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이라 착각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정작 인생에게 호흡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모든 것, 작은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냐고 묻고 계십니다.